

‘문향聞香-인연의 향기를 듣다’

‘1년간 휴관’ 의재미술관, 오늘부터 ‘사람향’ 담은 기획전으로 재개관

허백련 쌍낙관 작품 비롯 귀한 사연 깃든 산수화 등 34점 선배

살다보면 축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더 편리함을 쫓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림이나 글씨 선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날 의재 허백련은 어떤 그림이나 글로 축하해 주었을까요?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문향聞香-인연의 향기를 듣다’ 전시를 개최한다. 2001년에 개관한 의재미술관은 1년여에 걸쳐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행했다. 오랫동안 휴관을 했다가 문을 다시 여는 만큼 재개관전은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로 마련했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제1, 제2 전시실에서 열리는 제1부는 의재 허백련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 누군가에게 그려준 그림과 글씨, 흔히 말하는 쌍낙관을 한 서화 작품이다.



‘오월동주’



‘위진사해’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시기적으로는 의재 나이 32세 때인 1922년 작품에서부터 1973년 부산의 서예가 정남 오재봉에게 그려준 ‘산수화’까지 총 34점이다.

의재가 서화를 준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로는 손자로부터 지금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물들도 있고 공공기관에 보낸 작품도 있다.

근원 구철우, 춘헌 허규, 계산 장찬홍, 속아 최영자, 동작 김춘 등 연진회와 연진미술원으로 이어진 제자들에게는 호를 써주기도 하고 평생 간직할 명구들을 써주기도 했다. 하나하나 귀한 사연이 깃든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1922년 집안 어른인 허찬 선생의 회갑연에서 그린 산수화는 그의 초기 그림일 뿐 아니라 서예가 해강 김규진과 무정 정만조를 비롯한 석재 서병오, 고하 송진우, 인촌 김성수, 2·8독립선언의 주역 백관수, 서예가 소전 손재형, 송곡 안장호, 미산 허형, 소정 변관식, 허건 등의 작품과 함께 화점으로 꾸며져 있다.

1932년 화가로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당 김은호 화백에게 1932년에 그려준 산수화는 작지만 빼어난 작품이다.

연진회를 창립하던 1938년 연진회 창립회원인 근원 구철우에게 그려준 ‘계산소우’는 당시의 귀한 청록산수화이다.

전시의 제2부는 제4전시실에서 열리는 ‘지운(漣漣) 김철수(金綴洙) 서예전’이다.

지운 김철수(1893-1986)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947년 정계 은퇴 후 고향 부안에 손수 흙집을 짓고 꽃과 나무를 벗하며 살았다. 이때부터 김철수는 의재 허백련, 오지호 등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했다. ‘지운漣漣’이라는 호도 ‘늦게나마 고향에 내려와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됐다’는 뜻으로 의재가 지어



‘계산소우’



‘산수화’

〈의재미술관 제공〉

준 것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지운 김철수의 서예작품은 대부분 직한 허탈제가 지운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1977년 의재 사후에도 지운은 의재의 장손자인 직한 허탈제를 자주 찾아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했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써줬다고 한다.

의재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로 내왕도 어렵고 만나 손을 맞잡을 수도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작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사람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만큼 의재 허백련이 누군가와 정을 나눈 작품들을 감상하며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립발레단.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해설이 있는 러시아 발레

광주시향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 V’…16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의 기획 공연 ‘GSO 오페라 콘서트’ 다섯 번째 공연이 오는 16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30분(1일 2회)에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러시아 댄스(Russian Dance)’이며 홍석원 광주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러시아 발레 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시립발레단이 무대에 서며,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최다 지휘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해설로 진행한다.

첫 무대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주요 모음곡을 발레와 오

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손꼽힌다. 섬세한 기교와 표현력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광주시립발레단의 주역 무용수가 출연한다.

이어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들려준다. ‘불새’는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 중 최초 발레 음악이자 출세작이다. 이번 왕자와 불새, 마왕 카체가 등장하는 러시아의 옛 전설을 발레 음악으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연주 버전 중 1919년 버전으로 연주한다.

티켓은 전석 1만원(관람 8세 이상)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박희중 기자

빛고을서 만나는 조지아 영화

3·5일 광주독립영화관…조지아 출신 거장들의 작품 무료 상영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조지아 영화를 광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된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주한 조지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세계적 거장 감독을 배출한 조지아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2019년 국내에 처음 개최됐던 조지아 영화제는 조지아를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기획됐다.

조지아는 지난 20여년간 세 번의 전쟁과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맞으며 영화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으로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등 거장 감독과 작품을 배출하며 칸, 베를린 등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다.

올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조지아 영화제에서는 총 5편의 영화가 소개



된다.

3일 오후 4시 개막작으로는 기오르기 쉐겔라이의 피로소 마니가 상영된다. ‘백만송이 장미’의 실제 주인공

공인 조지아 화가 니코피로소마니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4일 오후 1시에는 르반 투트베리드제의 ‘모이라’, 오후 3시에는 루수단 글루르지지의 ‘하우스 오브 아더스’가 상영된다.

5일 오후 1시에는 마리암 헤치바니의 ‘데데’가, 오후 3시에는 아나 우르사제의 ‘스캐어리 마더’를 감상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왕관의 권위’ 쾰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ACC, 올해 피아노 수상자 ‘슈퍼클래식’ 무대…12일 예술극장

세계 최고 권위의 쾰 엘리자베스 콩쿠르(The Queen Elisabeth Competition) 피아노 부문 올해 수상자들이 ACC 슈퍼클래식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2021 ACC 슈퍼클래식 쾰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를 오는 12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쾰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힌다. 매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콩쿠르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등 4개 부문 경연을 매해 번갈아 개최한다. 전 세계 콩쿠르 중 유일하게 벨기에 여왕이 직접 주최하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ACC 슈퍼클래식 무대에는 2021년 피아노 부문 수상자 조나탕 푸르넬(1위)과 무카와 게이코(3등)가 출연해 다채로운 빛깔의 피아노 선율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감동을 관객

에게 선사한다.

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연주자로 일컬어지는 조나탕 푸르넬은 이번 공연에서 J.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한다. 쾰 엘리자베스 음악 채플(쾰 엘리자베스가 젊은 음악가를 위해 창립한 벨기에의 예술교육기관)의 레지던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카와 게이코는 J.S.바하 ‘프랑스 조곡 5번’과 M.라벨 ‘쿠프랭의 무덤’을 들려준다.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선율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수많은 국제 콩



조나탕 푸르넬

무카와 게이코

쿠르에서 우승했다.

공연 입장권은 ACC누리집(www.ac.c.go.kr)과 콜센터에서 예매 가능하다.

/박희중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